

프로야구 별들 “오늘은 사랑의 웨이터”

한기주·김현수·황재균 등 87등이들 서울서 ‘자선 일일호프’

애장품 경매 등 수익금 4년째 아마야구 지원·어린이 재단 기부

“6년 만에 선배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두산 투수 윤명준의 폭로에 사람들의 웃음이 터졌다. 6일 오전 1시간 넘는 시간이었지만 어렵게 한자리에 모인 한기주·임준섭(이상 KIA), 김현수·정수빈·윤명준(이상 두산), 황재균(롯데) 등 프로야구 별들은 피곤한 기색없이 이란저런 이야기와 기분 좋은 웃음으로 새 시즌을 열었다.
이들이 만난 것은 서울에서 열린 어린이 돕기 자선 일일호프 때문이다. 지난 2011년 겨울 한기주의 주최로 처음 시작된 행사는 올해로 4번째. 매년 사랑 나눔에 함께 했던 KIA 안치홍·두산 이원석의 군입대로 임준섭, 정수빈, 윤명준이 이들을 대신해 처음 행사에 참가했다.
5일 오후부터 실땀 없이 행사장을 오간 윤명준은 참가 배경에 대해 “고등학교 선배님으로부터 6년 만에 전화가 왔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답해 사람들을 웃겼다.

윤명준이 말하는 고등학교 선배는 한기주다. 광주 동성고 시절 1학년 윤명준은 2학년 양현종, 3학년 한기주와 막강 마운드를 구축했다.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새해를 보람차게 시작했다며 다음을 기약한 윤명준. 이번 모임의 막내 정수빈의 마음도 같았다.
팀선배 김현수의 부탁으로 힘을 더한 정수빈은 “주문을 받으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다. 많은 정성이 모여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또 다른 신입 임준섭도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하고도 기분 좋게 6일 오후 운동에 나섰다.
임준섭은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웠다. 올 시즌이 끝나면 군입대를 해야 하는데 꼭 다시 한번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화제 인물은 역시 김현수였다. 이날 7억5000만원이라는 프로야구 비(非) FA 최고 연봉 기록을



지난 5일 서울에서 자선일일호프를 연 한기주(왼쪽부터), 김현수, 황재균, 임준섭, 정수빈, 윤명준이 새 시즌 활약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작성한 김현수는 행사장에서도 특유의 넉살과 꾸준함으로 최고의 웨이터로 등극했다. 모임 주축인 ‘87동기’ 황재균·한기주와 2015시즌의 활약을 기약하기도 했다.
“(한기주와 2008년 이후 같이 운동을 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야구 좀 했으면 좋겠다”

고 농담 같은 진담을 얘기한 김현수는 “FA를 앞두고 있는데 몸을 사리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의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시즌을 준비하고 보내겠다”고 언급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어머니 설민경씨(1982 뉴델리 대회 테니스 여자 단체전 우승)와 모

자(母子) 금메달리스트가 되며 화제를 모았던 황재균은 글러브가 200만원에 낙찰되면서 경매행사의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한편 이들은 어려운 환경의 아마추어 야구 선수 등을 돕기 위해 행사 수익금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설의 오빠들 ‘슛 대결’

프로농구 올스타전, 신동파·이충희·문경은 등 진검승부



이충희 문경은

한때 국내 최고로 꼽히던 슈터들이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신동파(71) 전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이충희(56) 전 원주 동부 감독, 문경은(45) 서울 SK 감독은 오는 10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올스타전 첫날 하프타임 슛 대결을 한다.
3점슛 1개, 자유투 3개, 골밑슛 1개 등 모두 5개 슛에 가장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다. 왕년의 최고 슈터답게 3점슛 대결을 펼치는 게

정석이었지만 신 전 부회장은 어느덧 70대인데다 이 전 감독, 문 감독 역시 은퇴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에 체력을 고려해 대결 방식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과 이 전 감독, 문 감독은 한국 슈터 계보를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마다 이들 슈터의 활약이 빛났다.
1960~1970년대 국가대표로 활약한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농구 1세대 슈터로 꼽힌다. 1969년 아시아선수권,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해 한국이 우승하는 데 앞장섰다.
이 전 감독은 실업 6년 연속 득점왕, 농구대잔치에서 최초로 4000득점을 돌파하고 3차례나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는 등 1980년대를 풍미한 ‘슛 도사’다.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사상대 맨 꼭대기로 올려놨다.
현역 시절 ‘랍보 슈터’라는 애칭으로 인기를 끈 문 감독은 1997~1998시즌을 시작으로 5차례나 3점슛 성공에서 1위를 차지한 간판 슈터로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영광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아이스클라이밍, 2022 동계 올림픽 진입 목표”

대한산악연맹, 청송 월드컵 미디어 설명회...9일 개최식

대한산악연맹이 아이스클라이밍의 2022년 동계 올림픽 정식 진입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맹은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2015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미디어 설명회를 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에 이어 2022년 정식종목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이스클라이밍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일종의 이벤트인 ‘문화종목’으로 채택돼 대회 기간에 선수촌 등지에서 시범을 보였다.
연맹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청송 얼음골에서 열리는 청송 월드컵 기간에 방한하는 프리츠 브라이란트 국제산악연맹(UIAA) 회장과 대한체육회에 아이스클라이밍의 평창 올림픽 시범종목 채택 추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송군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UIAA가 주관하는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8개국 115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쟁을 벌인다. 한국에서는 2013~2014 시즌 남자부 종합 랭킹 2위에 오른 박희용과 여자부 3위 신운선 등이 나선다.
9일 개최식에 이어 10일 남녀 난이도와 속도 예선 및 준결승이 치러지고 11일 결승전이 열린다.
2014~2015 시즌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몬태나주 보즈먼에서 열린 1차 대회를 시작으로 청송 2차 대회, 스위스 사스페 3차 대회, 이탈리아 라벤스타인 3차 대회, 프랑스 샹페니 5차 대회, 러시아 키로프 6차 대회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KBO, 오늘 2015 프로야구 신인 교육

한국야구위원회(KBO)가 7일 ‘2015 프로야구 신인 교육’을 실시한다.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개 구단 177명의 신인 선수가 참여하며 프로야구에 대한 기본 사항과 프로야구 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김건우 KBO 육성위원의 ‘신인선수의 자세’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김재훈 춘천지검 부장 검사가 승부조작, 음주, 폭력 등 부정 방지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디어 인터뷰 교육, 반도핑 교육, 스포츠 토토 부정방지 교육, 스피드업 및 주요 대회 요강·규약 설명 등의 강의도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막을테면 막아봐”

6일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4~2015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기업은행 채선애(왼쪽)가 GS칼텍스 표승숙, 이나연의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